

#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2024 Conference 출장보고서

2024. 12. 11 ~ 2024. 12. 15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 1 출장 배경 및 목적

- (출장 목적)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이하 AASLE) 2024 학회 참석 및 논문 발표
  - AASLE는 노동경제학 분야 주요 학회 중 하나로, 매년 컨퍼런스는 「대학원 교원업적평가규정」 B+ 등급 학술지 중 하나인 Labour Economics 특별호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등, 학계 내에서 권위를 인정 받고 있음
  - 가령 2022년과 2023년 AASLE 컨퍼런스를 바탕으로 각기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 Labour Economics 특별호가 발행된 바 있음
  - 해당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아 논문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현재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진행 중인 노동경제학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됨
  - 발표논문 제목: Minimum Wages and the Elderly

## 2 출장 개요

-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태국 방콕
  - 출장기간: 2024.12.11.~2024.11.15.
- 출장자 (총 1명)

소속	성명	직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정수환	부연구위원

- 주요활동
  - 학회 참석 및 논문 발표

### 3 출장 일정

일자	주요일정(안)
12.11 (수)	[이동] 인천(09:15) → 방콕() (항공편 KE657)
12.12 (목)	[11:00-13:00] 학회 등록 [14:00 - 19:00] AASLE 2024 컨퍼런스 참가 • 참가 세션 - Wage Differential I - Presidential Address - Invited Session
12.13 (금)	[09:00-10:30] AASLE 2024 컨퍼런스 참가 • 참가 세션: Discrimination [11:00-12:00] AASLE 2024 논문 발표 • 발표 세션: Minimum Wage Impact II • 논문 제목: Minimum Wages and the Elderly [13:30-17:45] AASLE 2024 컨퍼런스 참가 • 참가 세션 - Keynote Lecture - Gender and Labour Market - Invited Session
12.14 (토)	[09:00-12:30] AASLE 2024 컨퍼런스 참가 • 참가 세션 - Elite and Aspirations [12:30-] 점심식사 후 학회 종료 행사 [이동] 방콕 출발(출발시간 21:30)
12.15 (일)	[이동] 인천공항 도착(도착시간 04:45, 항공편 KE658)

### 4 활동 내용

- 개요
  - 학회명: AASLE 2024
  - 일시: 2024년 12월 11일 (수) ~ 12월 15일 (일)
  - 장소: 태국 방콕, 출라롱콘 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

#### 1. 발표 논문 내용

- 논문 개요
  - 논문 제목: Minimum Wages and the Elderly
  - 발표 일시 및 세션: 12월 13일(금), Minimum Wage Impact II
  - 논문 주요 내용
    - 미국 노동시장의 대표성 있는 자료인 1979~2019년 Current Population Survey Outgoing Rotation Group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령층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주 단위의 최저임금 인상과 변화를 기존 최저임금 문헌에서 널리 활용된 여러 방법론을 병용하여 분석
    - 분석 결과, 여러 방법론 모두 일치하게 65~70세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증대시킴을 확인함
    - Distributed Lag 모형과 Event-Study를 이용하여 처치 시점 이전 평행 추세를 확인하여 분석의 신뢰도 제고
    - 고령층의 고용이 증대되는 현상을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노동수요가 더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상대임금이 올라간 청소년에게서 고령층으로 옮겨가는 노동자 간 대체(Labor-Labor Substitution)를 바탕으로 설명
    - 노동자 간 대체를 지지하는 두 가지 증거를 함께 제시함
  - 참석자들의 주요 질문
    - 현상을 노동수요의 반응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노동공급 측면에서 해석할 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 관련하여, 연금제도의 변화가 해당 결과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

가, 이를 식별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 등



© AASLE 2024. 학회 종료 후 학회에서 제공받음. 발표 중인 사진.

## 2. 참가 세션의 주요 발표 논문 및 시사점

### 1) Minimum Wage and Inequality among Women in Japan

□ 발표자: Hiroko Okudaira(Doshisha University)

□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조세의 구조로 인하여 기혼 여성은 연간소득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자 할 유인이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이와 조응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Labor Market Outcome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함
- 일본 여성의 경우, 기존의 선행연구(DiNardo et al., 1996 등)와 유사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시간당 임금(wage)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compression effect)가 발견되었으나, 소득(income) 불평등 감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었는데, 이는 여성 노동시간이 감소하였기 때문

○ 여성 노동시간이 감소한 핵심적인 이유는 위에서 소개한 조세 구조가 제공하는 유인(incentive) 때문으로 이해됨

○ 한국에서도 Kim et al.(2023, Journal of Public Economics)이나 기본과제로 진행한 『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제도적 구조와 어떠한 방식으로 조응하는지를 연구한 바 있는데, 국제적 비교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며 연구에 대하여서도 직관을 제공

### 2) Dreaming Big: Higher Occupational Aspirations from Persistent and Advantaged Kids

□ 발표자: Danusha Jayawardana (University of Melbourne)

□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호주의 아동과 청소년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이 가진 비인지 기술(non-cognitive skill)과 청소년의 희망 진로 사이의 관계에 사회경제적 배경(socioeconomic status, SES)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분석함

○ 호주 아동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가정 출신인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 사이의 '인내심(persistence)'은 만 10세 정도부터 분화되기 시작하며,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가정 출신의 아동이 인내심이 훨씬 강한 현상이 관측됨

○ 인내심 자질이 뛰어난 아동일수록 인내심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직업이 전반적으로 고소득 직종임

○ 가정적 배경이 아동의 특질을 어떻게 형성하며, 이것이 세대 간 이동성과 직업 선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연구한 논문으로, 특히 정책적 개입이 만 10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결되는 비인지 기술의 분화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사점도 큼

○ 다만 Heckman 등의 연구에서는 더 어릴 적에 사회경제적 배경에 말미암은 아동의 능력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자료와 분석 대상 기술(skill)이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임

### 3) A Rise of New Elites? The Role of Secondary Schools in Early Development

□ 발표자: Yasuyuki Sawada (University of Tokyo)

□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19세기 일본에서 중등교육의 확대가 장기적인 상향 이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
- 일본에서는 초기에는 지역별로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1개로 제한되었으나, 이후 중등교육이 확대되면서 학교가 늘어났는데, 이러한 중등교육의 확대를 준실험적 변이로 이용하여 교육이 상향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중등교육의 확대는 엘리트 가정 출신이 아닌 사람이 훗날 엘리트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였으나, 사무라이 가정 출신은 공적인 엘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Commoners 가정 출신은 고소득 혹은 전문직 엘리트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등, 가정의 출신 배경별로 영향이 크게 이질적이었음
- 이는 교육이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상향 이동성을 넘어서, 어떠한 종류의 이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더 복잡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비록 연구 배경이 직접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갖기는 어려우나, 문제의식은 한국의 사회이동성 연구에서도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연구임



© AASLE 2024. 학회 종료 후 학회에서 제공받음. 세션에 참가한 사진.

### 4) Systematic Discrimination in Firing

□ 발표자: Jan Katabek (University of Melbourne)

□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최근의 차별 연구는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승진 등에서의 차별도 연구되고 있으나, 해고 과정에서의 차별은 연구가 미진함
- 해당 연구는 네덜란드 노동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어떠한 유형의 노동자가 해고상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큰지에 관하여 연구
- 일반적으로는 자발적/비자발적 해고 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우며, 개별적인 해고 자료를 이용하여 해고 상의 차별을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해고되는 상황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 네덜란드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차등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이것이 나이에 따라 점점 성인 수준으로 근접해가는데, 이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함을 발표자의 이전 논문에서 보인 바 있음 (Jan Kabatek, "Happy Birthday, You're Fired!", 2021 ILR Review)

-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해고 과정에서의 차별을 분석한 결과, 특정한 ethnic minority 출신 여성이 더 해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찾아냄
- 대량해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떠한 유형의 노동자가 더 해고당할 가능성이 큰가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며 정책적 함의도 크다고 생각되어, 한국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큰 연구로 판단